

‘특성화’로 찾아가자

조계종 포교원 7일 ‘농촌지역 사찰 활성화’ 연찬회 개최

인구감소, 고령화, 장기간의 경기 침체, FTA 협약, 농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요소다. 지역의 소규모 사찰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암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도심 사찰과 농촌이 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개설하거나 영농회사 또는 유통법인을 만드는 ‘1사(寺) 1촌(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자본과 인력을 농촌

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온전히 풀기에 역부족, 따라서 지역 거주민이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찰이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사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4차 포교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사찰의 지역사회 역할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찬회에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나

선다. 선오 스님(당진 정토사 주지)은 ‘지역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기독교 절대 강세지역에서 문화포교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있는 선오스님은 지난 7월 개최한 정토문화원에서 다도와 타악 등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 연꽃축제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1000일 기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오 스님은 “당진면에 사랑방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지역포교 계획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민 스님(홍천 백락사 주지)과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 주지)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환경포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지난 8월 수재민 돕기를 위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홍천 백락사는 지역 주민과 호흡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찰 내 환경설치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전시회에서 국내 신진 설치예술 작가 15명이 일상의 생활용품을 멋진 설치예술품으로 승화시켰다.

매년 ‘동식물 천도제’를 봉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현종 스님은 세계안 쓰기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현종 스님은 “크고 웅장한 절보다 작고 소박한 절이 보다 자연친화적”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02)2011-1319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군법당에 부처님상 무상보시 ‘약정’

불모 허길량씨 본지 캠페인 동참후 첫 기증... 국방대학원 법당에

평생 부처님을 조성하며 살아온 불모가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불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군법당에 무상상으로 보시하겠다고 뜻을 밝혀 화제다.

본사와 함께 신축 군법당에 군법당 조성 캠페인을 진행 중인 불모 허길량씨가 10월 27일 국방부호국 원광사에서 조계종 군종교구에 약정서를 전달하고 신축 또는 증축이나 불상 교체 등을 원하는 모든 군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약정서에서 삼보의 가피로 불모가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국불교의 미래가 군불교 활성화에 있음을 공감해 석가모니 부처님을 무상으로 보시하게 됐다고 약정 의사를 밝혔다.

허씨가 군법당에 기증하게 될 시물은 2척×2.5척×3척 크기의 좌대를 포함한 동불로 조성된 석가모니부처님으로 기증을 원하는 군법당은 조계종 군종교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 올 연말 개원 예정인 국방대학원 법당에 처음으로 기증될 예정이다.

1953년 전남 승주에서 태어난 허씨는 서수연 선생의 문하로 목조각에 입문한 이후 김만복 스님의 맥을 이어 받았다. 1977년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관음’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인간문 화제로 지정된 장인이 남은 여생동안 부처님 전에 회향하겠다는 서원으로 군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을 아무런 대가없이 조성해준다면 한량없이 감사하리라 하겠다”며 “불모의 높은 뜻을



불모 허길량원주에서 두번째는 10월 27일 희망하는 군법당에 동불로 조성된 석가모니부처님을 보시키로 하고 약정서를 조계종 군종교구에 전달했다.

받들어 군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군종교구는 이날 약정서를 받고 허길량씨를 불사지도위원으로 위촉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사지도위원은 군법당 불사시 조연과 지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02)797-7266
김두식 기자

조계종 중앙총회 ‘새 판’ 들여다보니... 친 집행부성향 ‘개헌의적 수’ 넘겨

조계종 제14대 교구직선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일부 교구를 제외하면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38조에 따라 월정사, 수덕사, 직지사, 해인사 창제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등 9개 교구에서는 후보자가 수가 교구 선출정수 이내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교구직선에는 모두 47명의 후보가 13개 교구에서 경쟁했다. 총 유권자 수는 3580명으로 2595명이 투표에 참가해 72.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최고 투표율은 제 24교구본사 선운사가 기록했다.

총 투표권자 103명 중 10명을 제외한 92명이 투표에 동참해서 투표율은 89.3%를 냈다. 최다 득표 당선자는 직할교구의 태연 스님(130표).

이번 14대 총회에서도 13대 총회에 이어 조선의원의 약진이 두드러

졌다. 조·재선현황을 살펴보면 재선 19명(25%) 3선 19명(25%) 4선 8명(10.5%) 순이었다.

최다선 의원은 7선의 신희사 정휴 스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능대표 장음 스님이 5선으로 집계됐고 직능대표 학담 영배 장주 자승 스님, 현 스님과 교구직선 영담 진만 보선 스님 등이 4선의 의원으로 나타났다.

3교구 신희사는 정휴 스님의 7선 기록도 화제였지만,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과 경합했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은 각 19표로 동표가 나와 법랍이 도후 스님(38년)보다 4년이 앞선 지원 스님이 가까스로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정센터가 부적격 후보로 지명한 현법 스님은 법주사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부산 선암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원 스님도 출마했던 판

음사가 재선거 결정이 나면서 총회 입성이 무산됐다.

지난 스님 집행부에서 중앙총회기 관 교역직을 지낸 스님들의 당선도 화제가 됐다. 현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명선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현(직할), 전 총무국장 정범(직할), 전 기획국장 성목(고운사), 전 감사국장 선문(동화사), 전 사무국장 성효(용주사) 스님 등이 교구직선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계파별 부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 친 집행부 성향 총회의원이 55석 이상을 차지해 재직 3년의 2인 개헌의적수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더욱 공고해진 여권의적 수를 바탕으로 중단운영에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엄회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 2교구 용주사 직선직 총회의원으로 당선된 화엄회 회장 성직 스님은 “불국사를 빼고도 현재 파악된 의석수가 17-18석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강·보림회 등 반 집행부 스님들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중앙선거위원회는 11월 3일 당선증을 교부한다. 또 제14대 중앙총회가 중법에 따라 11월 13일 개원될 예정이어서 전반적 의장단 선거전도 막이 올랐다.

조용수 기자

‘선암사법’ 개정 등 내나 태고종 총무원 수습방안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이 재산권 문제로 불거진 선암사 사태와 관련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무산으로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선암사법 개정 등 5개항의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성명서는 △전산대회 부활 및 총회에서 주지선출을 주내용으로 하는 선암사법 개정 △현 주지 승조 스님의 자주권 보장 △도선암 등기 환원 △양양지(도월) 등 사법당국 고소 고발 △선암사 별실 문화재 조사위원회 기동 등 사태처리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태고종 전국부구니회(회장 여초)는 10월 20일 ‘태고종립 선암사의 분래면목을 회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선암사의 조기정화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원용종 총무원장에 성관 스님

대한불교원용종(종정 일공)은 10월 17일 총무원에서 열린 중앙총회에서 제4대 총무원장에 성관스님(수원 용화정사)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무원장 취임식은 내년 3월 26일 청중기독교와 함께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성관스님(수원 용화정사)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형 발행·편집인: 박혜일 인쇄인: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 한·일·대만 공동 학술 연구

한국·일본·대만이 공동으로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확대·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기간 2005년1월 ~ 2007년12월 (약3년간)

연구기관 한국: 통도사성보박물관
일본: 元興寺文化財研究所
대만: 東海大學

공동지원 한국: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리)상호저축은행
일본: トヨタ財団 The Toyota Foundation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지은·성보박물관장 범하

2006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5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 2006년 12월 3일(일) 오후 1시~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 학교별 일괄접수
- 2006년 10월 25일(수) ~ 11월 15일(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비문각행정고시학원(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 2007년 1월 10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